



甲子年 環境隨想

盧 隆 熙

〈서울大環境大學院 教授〉

〈本報 編輯委員〉

甲子年은 이미 지나갔다. 그리고 乙丑年도 벌써 그 첫달을 끝맺으려 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해의 얘기를 써 보았던들 時事性은 별로 없다. 그러나 雜文이라도 써 볼 양으로 메모해 두었던 몇 가지 지난해의 事件들을 적어 보기로 한다. 記錄에 남기고 싶어서만은 결코 아니다.

「유니온 카바이드」라는 化學製品會社가 있다. 83年 賣出額이 90 億弗로 全美製造業係中 37位로 랭크되어 있는 大企業體이고 38 個國에 工場을 두고 130 個國에서 製品을 販賣하고 있는 널리 알려진 多國籍企業體이다. 이 會社가 1977年에 印度의 마드야 프라데시州의 首府인 보팔市에 工場을 設立해서 數百名의 現地人 雇傭을 통해 地域開發에 크게 寄與해 왔다. 設立後 6年동안 여섯차례의 작은 事故가 나서 1名이 死亡하고 47名이 負傷되었고 62萬달러의 財産上被害를 일으켰으나 아무도 이것을 環境問題라고 注目한바 없었다. 67萬余 人口를 지닌 보팔市 郊外에 서 있는 이 工場은 市의 工業化施策에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굳게 믿어 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 밤중에 1時間 정도 漏出된 毒姓가스는 밤 氣溫이 比較的 寺늘하고 (60°F) 바람이 없어 깊은 안개만이 地上을 뒤 덮고 있던 氣象條件으로 가스擴散이 防止되었을 事態였음에도 퍼져나간 毒姓구름은 2,500名의 人命을 앗아가고 15萬名의 入院患者를 냈을 뿐만 아니라 數千頭의 動物을 斃死시키는 大慘事를 물고 왔다. 死亡者의 大部分은 弱死者처럼 肺에 영향을 받아 죽었고 어린이와 老人은 심장마비로 죽었다 한다. 美國 本社의 工

場施設裝備와 開途國 印度에 마련된 汚染防止 施設에 어느 정도 차가 나는지는 確實치 않지만 環境의 販賣代錢으로 瞬間的 繁榮이라도 누려 보겠다는 開途國의 環境政策에 큰 警鐘이 되는 事件임에는 틀림 없다. 우리나라에도 이 會社가 進出해 있다니 政府組織法上的 管轄權 是非보다는 全般的 對應策 마련이 急先務인듯 하다. 설마 施設費의 節減이 投資의 比較優位性으로 作用해서 開途國에 進出한 多國籍企業일 리야 없지만 技術의 發展段階가 全力을 集中해도 事故가 날 憂慮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 배리 코모나는 技術의 發達을 環境의 側面에서 볼 때 프랑켄슈타인 바로 그것이라고指摘했던 것이 아닐런지 모를 일이다.

美國의 大統領選舉가 끝나고 레이진政權의 2期執權이 確定되었다. 史上 처음으로 女性副統領候補를 同伴했던 먼데일은 어이 없이 大統領되는 길에서 멀어져 갔다. 레이진이 먼데일을 壓勝할 수 있었던 再當選要因은 4P라고 分析되고 있다. 繁榮 (prosperity), 平和 (peace), 愛國心 (patriotism), 個人的魅力 (personality)이 그것, 그러나 環境問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별로 알지 못하고 지나간 것은 「市民黨」의 쏘니아 존슨大統領候補의 活躍이다. 共和·民主兩黨制가 確立된 후 余他黨의 大統領候補에는 매스컴이 焦點을 맞추어주지 않아 우리들 外國人들에게 68年の 월레스候補와 같은 例外的인 것을 除外한다면 他黨이나 無所屬의 候補는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常例이나 美國大統領選舉制度의 內容으로 보아 어느 選舉때나 候補者의 數는 엄청나게 많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번 選舉에도 候補者數는 224名에 이른다. 35세以上 美國出生의 美國人으로 14年以上 美國內居住者면 누구나 聯邦選舉委員會에 屆出만 하

면 그것으로 大統領候補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候補者가 投票의 對象이 되려면 各州에서 州法이 定하는 一定數 有權者의 推薦署名을 받아야 投票用紙에 候補者로서 登載되는데 그 一定數란 州마다 달라서 캘리포니아는 12萬名이나 되지만 미시시피州는 1千名이면 되도록 되어 있다. 쏘니아 존슨女史가 大統領候補가 되고 리차드 월튼男性候補가 러닝메이트로 된 市民黨은 西獨의 綠色黨과 비슷하게 軍縮非暴力 女權伸張 環境保護가 政綱政策으로 되어 있다. 民主黨의 正男副女候補가 크게 物議를 이르킬 정도로 매스컴의 注目을 받았음에도 不拘하고 市民黨의 正女副男候補가 크게 報道되지 않은 것은 正式投票對象으로 登錄된 州의 數가 17에 그쳤고 環境論만을 앞세운 政黨이었기 때문이었으리라. 80年 大統領選舉때에는 名著 「閉鎖된 環球」 (The Closing Circle)의 著者인 生態論者 배리 코머니가 市民黨候補로 뛰어들어 25萬票를 얻었는데 존슨女史의 경우 이에 못미친듯 하다. 當年 48才인 존슨女史는 라드거스大學에서 1965年 博士學位를 딴 學究派 女性으로 著書도 여러卷 있고 男女同權을 위한 憲法修正을 主張해서 男性優位宗教에 所屬했던 佛敎로부터 破門된 盟烈女性이기도 하다. 一國의 大統領이 環境政策만을 政綱으로 삼을 수 없음을 當然하나 존슨女史의 健闘를 빌어보는 마음 간절해 진다.

日本나라 오끼나와縣은 여러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두번째로 큰 섬이 面積 284 km², 섬둘레 130 km인 이리오모테섬(西表島)이다. 國立公園으로 指定되어 있는 이 섬의 대부분은 亞熱帶原生林이어서 野生動物의 極樂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 또한 500여명이 이곳 住民으로 살고 있다. 이 섬에서 狹鰐가 發見된 것은 1965年の 일이고 이것이 이리오모테 狹鰐이로

命名되어 國家의 天然紀念物로 指定된 것은 1977年의 일이며 世界野生生物基金이 그 保護에 積極的姿勢를 보이기 始作한 것은 最近의 일이라 한다. 그런데 이 이리오모페섬의 開發計劃은 오기나와가 本土復歸되기 前부터 論議되었으나 頻번히 坐礁되는 것은 自然保護 때문이었다. 國家指定의 特別天然紀念物인 이리오모페 섬 鷓鴣의 數는 약 50頭인데 오기나와縣民 平均所得의 80%에 不過한 이 섬의 住民 500名의 所得向上을 위한 開發計劃이 中止되어야 하느냐가 問題의 焦點이다. 自然保護나 地域開發이냐란 어느나라 어디서나 따라다니는 永遠한 테마인 것 같다. 다만 흥미있는 것은 現地住民의 意識構造이다. 世界野生生物基金日本委員會가 現地島民을 對象으로 한 意識調査結果를 보면 鷓鴣가 서식한다는 것은 자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변함없이 保護해야 한다는 答은 39.5%이고 그 反對 즉 자랑스럽기는 커녕 귀찮은 存在라고 答한 應答者는 24.3%인데 前者의 答은 非農家 들에 한 사람뿐이고 後者의 答은 農家 다섯에 한명 꼴로 되어 있다. 自然保護行政보다 開發이나 生活向上을 위한 要求가 輕視될 때 現地住民의 反발이 어떤것인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問題의 解決은 鷓鴣이나 住民이냐가 아니라 鷓鴣이도 住民도 다같이 共生할 수 있는 方途의 摸索에 달려 있을듯 하다.

日本 東京의 池袋에 가면 西武百貨店이 있다. 그 7층에 「물 코너」가 있어서 50種에 이르는 미비랄 워터를 販賣하고 있다. 日本産이 43種이고 韓國의 生水를 包含한 輸入水가 7種이다. 價格은 1ℓ當 180엔~200엔인데 輸入品價는 2~5倍여서 本國産은 水道料金の 2000倍이고 輸入品價格은 1萬倍에 이르나 月間 7~8千本 이상 販賣된다고 한다. 그 用途는

위스키에 타먹거나 차나 커피를 끓일때 利用하는 것이 常例이나 요즈음은 病間安이나 秋夕歲暮 등의 膳物用으로 팔린다고 한다. '83年現在 日本人 1人當 生水攝取量은 0.75ℓ여서 同年 美國人 1人當 15.1ℓ의 20分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美國人의 경우 1976年의 5.3ℓ가 7年사이에 3倍로 늘어난 것으로 보아 日本의 伸張勢는 急成長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이와 같은 生水붐이 일어나는 要因은 自然志向, 건강志向, 眞品志向 등 流行志向에 의한 것이 크다고 하겠으나 根本原因은 環境保護에 따른 水道물의 水質惡化에 있음은 勿論이다. 日本 家庭用淨水器의 販賣實績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全國家庭用淨水器協議會의 調査에 의하면 昨年度 販賣實績이 60萬台에 이르고 全國 普及率이 約 250萬台이라고 한다. 더욱이 富營養化된 카스미가우라를 上水源으로 하는 人口 4萬의 스구마學園都市의 淨水器 普及率은 50%가 넘는다는 것이다. 戰中派의 경우 預科練의 노래로 잘 알려진 카스미가우라가 富營養化된 것은 1963年에 常陸川逆水門이 完成된 때 부터라고 한다. 太平洋으로 부터의 逆流을 防止할 目的으로 마련된 이 逆水門은 鹽害와 水害를 防止하는 役割은 했으나 同時에 湖水의 閉鎖性을 높여주는 폐단을 가져와 流域內 下水道 普及率이 15%에 不過해 下水물이 貯水地로 化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一般적으로 日本 水道물의 水質을 떨어뜨리고 있는 理由로는 다음 두가지로 들고 있다. 그 첫째는 점령군이 野戰給水基準을 援用해서 消毒用 殘留鹽素基準值를 淨水場段階에는 3ppm, 給水栓段階에서는 1ppm으로 하라는 指示가 水道行政의 基礎로 되어 水道法施行規則이 給水栓의 殘留鹽素의 下限值를 0.1ppm以上이 되도록 定한 까닭에 添加鹽素와 水中有機物과의 化合을 통한 發癌性

物質의 發生이 論議될 程度로 많은 鹽素를 使用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들께서는 美國文化輸入一邊倒施策이 從前의 英國式 緩速濾過裝置를 버리고 美國式 急速濾過法을 援用했기 때문에 量의 問題였던 給水를 성공리에 解決시키기는 하였으나 물의 質을 크게 떨어 뜨렸다는 것이다. 어찌되었던 카스미가우라의 水質이 어느程度 惡化되어 있는가는 그곳 水道事業所가 全國平均의 8倍以上의 藥品費를 쓰고 있다는 點과 水道물값이 東京都의 1.7 倍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다행히 河川의 自淨作用을 應用한 浸漬濾床法을 開發해서 科學萬博이 열리는 今年 3月까지 1日量 16萬톤 30萬人分을 供給한다는 것은 대단한 努力이라고 하겠다. 到處에 河口毒을 막고 食水源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의 經驗은 他山之石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것 같다. 끝으로 日本의 環境廳은 지금까지 每年 12月에 發表해 오던 各河川의 汚染度 調査發表와 아울러 名水百選構想에 따른 淸澄한 自然水를 選定하여 褒賞하리라고 한다. 自然水의 淸澄함과 結付시킨 水源周邊의 環境保全施策으로 본 받을만 하다고 하겠다.

지난해 9月 28일부터 사흘동안 日本 石川縣 金澤市에서 環日本海(東海)國際심포지엄이 開催되어 韓, 中共, 蘇, 美, 日本 學者들 28名이 發表를 하고 千餘名이 參加하여 眞摯하게 지금

까지의 太平洋中心論權에서 빛을 잃었던 東海沿岸國들의 過去와 現在 및 未來를 照明해 보는 時間을 가졌었다. 筆者도 이에 초청되어 우리나라의 住宅과 環境問題에 대한 報告를 한 바 있다. 體制가 다른 나라 代表들 사이의 會議라서, 특히 이북代表도 參席할 豫定이라는 會議여서 緊張되었던 것이 事實이나 學者들 사이의 討論이어서 그리고 이북代表의 不參이 確定된 會議여서 그 緊張은 杞憂였음을 알게 되었다. 經濟開發施策 및 經濟成長成果와의 關聯에서 環境施策 및 그 成果를 報告했을 때 討議者로 나온 두 日人교수가 中國問題를 다룬 上海都市計劃局의 王氏의 發表를 제쳐놓고 韓國問題에 熱을 올리는데 感激하였다. 특히 環境權의 憲法上 名文化和 環境影響評價制度의 採擇은 日本보다 韓國의 施策이 앞섰음을 부러워한다고 指適했을 때 자랑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名分과 實際가 어느 정도 일치되느냐에 대한 苦悶은 나만이 가슴속에 간직한 秘密이었다. 보다 나은 接近을 위해 環境業務의 大統領에 대한 初度巡視報告가 독자적으로 이룩되는 날을 想像해 본다. 지난 해는 北漢山開發計劃을 놓고 많은 論難이 있었다. 이것이 있을 수 있었다는 점에 큰 意義를 찾고 있는 筆者로서는 보다 前進의인 姿勢에 希望을 걸어 보고 싶다.

* 내가가꾼 환경속에

자손만대 웃고산다.*